

살인누명을 벗긴다

“재판장님, 본 검찰관은 피고가 살인현장에서 도주하는 광경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의 상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변호인측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재판장님, 반대하지 않습니다.”

B지방검찰청의 허준검사가 직원을 시켜 텔레비전과 VCR을 손수레에 싣고 법정안으로 들어올 때 저명한 범죄학전문가 최을교수는 검찰관석 뒷 좌석에 앉아 재판의 진행과정을 지켜 보고 있었다. 최을교수는 오랜 친구인 허준검사를 방문차 B시로 내려왔다가 허검사의 요청으로 검찰관의 자문역을 승낙하게 된 것이다.

허검사가 맡은 사건은 만만치 않았다. 배장섭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6개월 전 어느 토요일 오후 그의 고용주인 58세의 노원수씨를 노씨의 집에서 사살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노원수씨는 집에 혼자 있다가 사살되었다. 그날 오후 3시 좀 지나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남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노원수씨집에서 총성이 들렸다고 알려 왔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한 남자가 현장에서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 남자는 승용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도망쳤는데 경찰은 필사적으로 추적했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경찰은 차 번호판의 번호를 식별하여 추적조사한 결과 배장섭씨의 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배씨의 집에 들이닥쳐 배씨가 바로 노원수씨 집에서 도망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그런데 배장섭씨에게 더욱 불리한 증거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노원수씨의 집 근처에 살던 한 남자가 뒷마당에서 딸의 생일잔치광경을 비디오에 담고 있었는데 노씨집에서 한 남자가 달려나왔다는 것이다. 이때 이 증인은 무심코 이 남자를 필름에 담았는데 그

가 바로 배장섭씨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증인은 그 뒤 경찰에서 살인사건이 있던 날 총소리같은 것을 들었으나 당시에는 다만 자동차의 백파이어(엔진의 逆火)에서 나오는 소음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총소리를 알려오는 전화를 받은 오후 3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 증인이 바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전화 제보자였으며 자기의 제보가 늦었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 그 시간에 알려온 것이라고 경찰은 믿고 있다는 사실을 허준검사로부터 알게 되었다. 그러나 노원수씨가 이보다 일찍 살해되었다면 경찰은 배장섭씨가 총을 쏜 뒤 도망쳐서 집에 돌아와 총을 원상대로 복귀시켰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최을교수는 비디오를 지켜보았다. 비디오는 분명히 배장섭씨가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치는 광경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당년 26세인 배장섭씨는 한창 번창하는 여행용가방 메이커인 노원수상사의 회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4세된 배씨의 처 백장미씨도 한때 노원수씨의 비서로 일하다가 배씨와 결혼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다. 배장섭씨 동료직원들에 따르면 노원수씨는 기혼자이고 백장미씨보다 30여살이나 나이가 더 많은데도 백장미씨와 사랑하는 관계였고 그녀가 결혼한 후에도 애정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백장미씨에 대한 노원수씨의 집념은 회사내에서는 비밀이 아니었으므로 배장섭씨도 그런 사실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장미씨와 가장 친한 친구인 변옥자씨는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 백장미씨가 자기에게 비밀스런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노원수씨가 백장미씨에게 남편 배씨가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씨는 백장미씨가 배씨와 헤어지고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배씨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변옥자씨에 따르면 백장미씨는 노원수씨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나 노씨가 자기 남편에게 누명을 씌울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수씨의 처인 김수정씨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 남동생인 김수달씨와 함께 쇼핑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경찰이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죽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남편이 38구경 권총을 갖고 있었고 언제나 서재서랍에 간직해 두

었는데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탁상일기는 아직도 그대로 있고 토요일 오후 3시에 배장섭씨와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탁상일기는 증거로 채택되었다.

검찰관이 내세운 마지막 증인은 노원수상사의 출납과장인 김수달씨였다. 그는 노원수사장이 자기에게도 배장섭씨가 회사돈을 훔쳤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꺼리가 거의 없어졌다. 배장섭씨는 자기 변론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했다.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은 그의 처 백장미씨뿐이었다. 그런데 이 증언도 다소 불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최율교수는 생각했다. 변호사의 질문을 받고 백장미씨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날 그녀의 남편은 노원수씨를 만날 약속을 해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장섭씨는 노사장에게 자기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다. 배씨가 노사장을 만나려고 집을 나간 직후인 하오 2시45분 경 백장미씨는 노사장과 대결하는 남편과 합류하기로 결심하고 노사장택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도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런데 집으로 차를 몰고 오던 길에 김수달씨가 도로변 숲이 우거진 공원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 배씨가 체포된 다음 날 그녀는 경찰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다. 공원을 수색한 결과 살인에 쓰인 총을 찾아냈다.

이것을 계기로 일부 혐의는 김수달씨쪽으로 기울어질듯 했으나 김수달씨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시간 그의 누이와 함께 쇼

핑하고 있었다는 훌륭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허검사가 백장미씨에게 반대신문을 하려고 했을 때 최율교수는 귀엣말로 이렇게 속삭였다.

“이 친구야, 배장섭씨는 죄가 없네. 만약에 재판장이 내게 백장미를 질문할 권한을 준다면 무죄를 증명해 보세.”

허검사는 오래 전부터 최교수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는 터여서 재판장과 잠깐 협의에 들어갔다. 재판장은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이해적인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반대가 없어 휴정하고 최교수가 질문을 할 수 있게 승락했다.

“백장미씨, 나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노원수씨의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남편의 유죄가 확정될 지 모릅니다. 내 말을 알아 들었습니까?” 최율교수는 물었다.

“네, 알겠습니다.”

“백장미씨,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길가에서 김수달씨를 정말 본 것은 아니지요?”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백장미씨는 주장했다.

“정말 백장미씨가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장미씨는 남편이 애써 감추었던 총을 집에서 발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체포된 뒤 백장미씨는 숲속에 묻고 나서 김수달씨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던 것입니다. 백장미씨, 백장미씨의 꾸며 낸 이야기는 남편을 구해 보자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백씨를 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백장미씨, 당신은 남편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백장미씨는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다. “네, 그러나 남편은 저를 위해 범행한 것입니다. 노원수씨는 우리의 일생을 망칠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장미씨는 아까 말한 대로 숲속에 총을 감추어 그럴듯한 의심을 자아내게 해서 경찰이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율교수는 재판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약에 본 법정이 본인에게 보충설명을 허용해 주신다면 누가 노원수씨를 살해한 것인가 밝힐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교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春堂人)

☞ 해답은 98쪽에